

Electrooptic 물질 KTiOPO_4 (KTP)의 핵자기공명 연구

한정관 · 오동근 · 이창훈 · 이철의*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서울 136-701

김정남 · 김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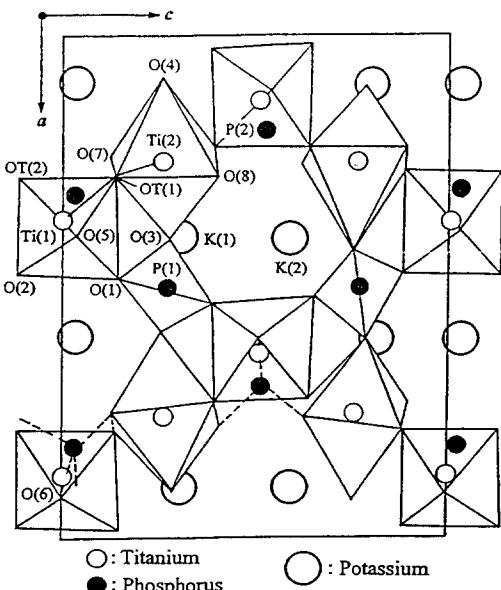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부산 609-735

(1996년 6월 14일 받음, 1996년 10월 14일 최종수정본 받음)

Electrooptic 물질 KTiOPO_4 (KTP)에 대하여 ^{31}P 핵자기공명을 수행하였다. 17.9 MHz의 공명 주파수에서 77-390 K 온도 범위에서의 스픬-격자 완화 시간 (T_1) 측정으로부터 전도 기구의 변화에 따른 두 개의 상전이를 관측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상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다.

I. 서 론

KTiOPO_4 (KTP)는 1951년 Ouvard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고[1], 그 후 x-선 실험[2]와 Raman 산란 실험[3] 등을 이용한 물질 구조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Fig. (1)과 같은 구조를 가짐이 알려지게 되었다[4]. 이 물질에 대한 특성으로서 1.06 μm 의 파장영역에서 2차 조



a-c 평면에서 본 KTP의 구조

Fig. 1. KTiOPO_4 의 결정 구조.

화파가 발생하는 우수한 비선형광학 특성과 빛의 에너지 손실이 적은 높은 광손상 문턱 에너지(약 150 MW

/cm²)가 밝혀졌다[5, 6]. 또한 Bierlein 등에 의해 1-10 MHz 영역에서 압전 공명 현상이 관측되었고[7], 1 kHz 이하 영역에서 Debye 형의 완화 현상이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haldin 등은 200 K 이하에서 초전 효과(pyroelectric effect)를 관측하였으며[8], 특히 80 K 근처에서 자발 분극량 ΔP_s ($1.8 \times 10^{-2} \text{ C/cm}^2$)가 최대값을 갖고, 200 K에서는 초전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여 off-pyroelectric 전류가 흐름을 관측하여 이 온도에서 KTP의 초이온 상전이를 제안하였다. 순수한 결정 KTP에 대한 상온과 저온에서의 Raman 산란과 적외선 반사도 측정에서는 특별한 사슬인 Ti-O 결합이 강력한 광학 비선형성에 기여함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열-전기 실험을 통하여는 20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전자가, 200에서 300 K 사이에서는 K^+ 이온이, 그리고 300 K 이상에서는 큰 폴라론이 전하 운반자로 알려져 있다[9, 10].

위와 같이 KTP의 여러가지 물리적인 성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물질의 미시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핵자기공명(NMR)을 통한 상전이나 전도 기구(conduction mechanism)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TP 제의 ^{31}P 원자핵에 대하여 넓은 온도 범위에서 핵자기공명 측정을 통하여 스픬-격자 완화시간에 반영되는 전하 운반자들의 동력학을 조사함으로써 이 물질의 미시적 환경과 전도 기구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실험방법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펄스 핵자기공명장치와 Varian 전자석을 이용하여 17.9 MHz의 ^{31}P 핵자기공명 주파수에서 KTP(KTiOPO_4) 시료의 스픬-격자 완화 시간

(T_1)을 반복되는 90도 펄스들 간의 간격을 변화시키며 정상상태(steady-state)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온도 조절을 위하여는 77 K로부터의 저온 영역에서는 Air Product사 제품인 Heli-tran 프로브에 액체질소를 훌려주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상온에서 390 K까지의 고온 영역에서는 실험실에서 제작한 고온 프로브를 사용하였는데, 컴퓨터 interface를 이용하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KTP 시료는 flux법으로 다결정 형태로 성장시켰으며,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의 압전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분말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III. 이론

일반적인 핵자기공명 이론에 따르면 스픈-격자 완화비율 $1/T_1$ 은 분광 밀도 $J^{(1)}$, $J^{(2)}$ 에 의하여

$$\frac{1}{T_1} = C[J^{(1)}(\omega) + J^{(2)}(2\omega)] \quad (1)$$

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 는 대상 핵에 의존하는 상수값이다. 분광밀도 $J^{(q)}$ 는 자기적인 쌍극자-쌍극자 상호 작용의 상관 함수 $G^{(q)}(t)$ 의 푸리에 변환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스픈-격자 완화 시간 (T_1)은 갑작스런 섭동이 일어난 후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핵 스픈 계에서의 세로 완화 시간(longitudinal relaxation time)이며, 분자의 열적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자기 쌍극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주어진다. 이 때 분자 운동에 대한 상관 시간을 τ 라 하면 ³¹P의 NMR 스픈-격자 완화율 $1/T_1$ 은

$$\begin{aligned} \frac{1}{T_1} &= \frac{6}{20} \left(\frac{\mu_0}{4\pi} \right)^2 \frac{\gamma_1^2 \gamma_2^2 \hbar^2}{b^6} \\ &\times \left[\frac{\tau}{1 + (\omega_1 - \omega_2)^2 \tau^2} + \frac{3\tau}{1 + \omega_1^2 \tau^2} \right. \\ &\left. \frac{6\tau}{1 + (\omega_1 + \omega_2)^2 \tau^2} \right] \end{aligned} \quad (3)$$

로 표시된다. 여기서 γ_i 는 자기 회전 비율이고, μ_0 는 진공 중의 투자율, $\omega_i = \gamma_i H$ (H 는 외부 자기장)는 Larmor 주파수이며, $\tau_c = \tau_\infty \exp(E_a/k_B T)$ 로 표시된다(E_a 는 활성화 에너지). 이로부터 공명주파수와 상관시간 τ_c 에 따르는 두 극한에서의 스픈-격자 완화 비율은

$$\begin{aligned} \frac{1}{T_1}(\omega, T) &\sim e^{E_a/k_B T}, \quad \omega \tau_c \ll 1 \\ \omega^{-2} e^{-E_a/k_B T}, \quad \omega \tau_c &\gg 1 \end{aligned} \quad (4)$$

로 주어진다.

IV.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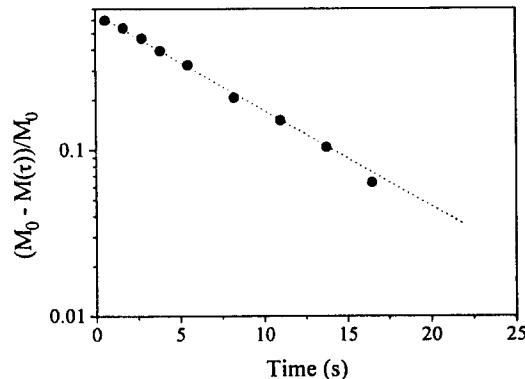


Fig. 2. 상온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화값 회복 모양.

Fig. (2)는 상온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화값 회복 모양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이 계의 스픈-격자 완화는 통상적인 단일지수함수 형태인 $M(t) = M_0(t)[1 - \exp(-t/T_1)]$ 로 잘 기술됨을 알 수 있으며, 전 측정 온도구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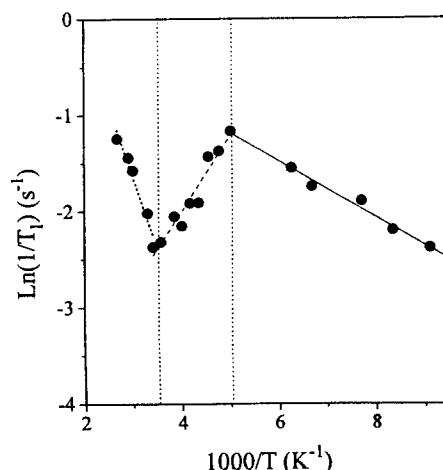


Fig. 3. 온도의 역수($1/T$)에 따른 스픈-격자 완화비율($1/T_1$)

서 이에 따라 스픈-격자 완화시간 T_1 을 구할 수 있었다. Fig. (3)에서는 온도의 역수 ($1/T$)의 함수로서의 $1/T_1$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200 K와 300 K 부근에서 스픈-격자 완화 비율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온도 구간에서 $\ln(1/T_1)$ 이 직선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구간에서 식 (4)의 극한 조건들이 만족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0 K 이하와 300 K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는 $\omega\tau_c \gg 1$, 200~300 K 사이의 온도 구간에서는 $\omega\tau_c \ll 1$ 의 극한 조건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식 (4)에서의 극한 조건의 변화는 각 온도 구간에서의 전도 기구의 변화에 따른 상관시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 K 이하에서는 전자가 전도기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P-P간의 쌍극자 상호 작용에 의한 상관함수만이 T_1 에 기여하게 된다. 또 초이온(superionic) 상전이가 일어나는 200 K와 300 K 사이에서는 K^+ 이온이 전하운반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K^+ 이온의 상관시간이 $\omega\tau_c \ll 1$ 의 극한조건을 만족하며, 이 이온들의 운동이 주요 스픈-격자 완화기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300 K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는 주요 전하 운반자이며 아울러 주요 스픈-격자 완화 기구인 큰 폴라론이 다시 $\omega\tau_c \gg 1$ 의 조건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식 (4)에 따르면 각 온도 구간에서의 $1/T_1$ 의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너지 E_a 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한 활성화 에너지는 200 K 이하 온도에서 25 meV였고, 200~300 K에서는 70 meV, 그리고 300 K 이상에서는 116 meV로 나타났다. 이는 각 온도 구간, 즉 각 상에서의 주요 전하 운반자들의 유효질량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들뜨는 데 필요한 열적 에너지의 크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V.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electrooptic 물질인 KTP에 대하여 17.9 MHz에서 수행한 ^{31}P 핵자기공명 실험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물질에 대한 첫 핵자기공명 연구 중의 하나인 본 연구에서는 스픈-격자 완화비율($1/T_1$) 및 상관

시간의 변화로부터 전도 기구 변화에 따른 두 개의 상전이, 즉 200 K 부근에서의 초이온 상전이 및 300 K 부근에서의 큰 폴라론 형성 상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상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로서 저온상으로부터 고온상까지 각각 25 meV, 70 meV, 그리고 116 meV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신소재 분야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참 고 문 헌

- [1] L. Ouvard, Gmelin Handbook, 41 (1951).
- [2] R. Masse and J. C. Grenier, Bull. Soc. Mineral. Crystallogr. **94**, 437 (1971).
- [3] G. A. Massey, T. M. Loehr, L. J. Willis, and J. C. Johnson, Appl. Opt. **19**, 4136 (1980).
- [4] B. Mohamadou, G. E. Kugel, F. Brehat, B. Wyncke, G. Marnier, and P. Simon, J. Phys. Condens. Matter **3**, 9489 (1989).
- [5] F. C. Zumsteg, J. D. Bierlein, and T. E. Gier, J. Appl. Phys. **47**, 4980 (1976).
- [6] D. K. T. Chu and H. Hsiung, Appl. Phys. Lett. **61**, 1766 (1992).
- [7] J. D. Bierlein and C. B. Arweiler, Appl. Phys. Lett. **49**, 917 (1986).
- [8] Yu. V. Shaldin and R. Poprawski, J. Phys. Chem. Solids **51**, 101 (1990).
- [9] V. D. Antsigin, V. A. Gusev, V. N. Semenenko, and A. M. Yurkin, Ferroelectrics **143**, 223 (1993).
- [10] B. C. Choi, J. B. Kim, and J. N. Kim, Ferroelectrics **155**, 183 (1994).

NMR Study of the Electrooptic Material KTiOPO₄ (KTP)

J. K. Han, D. K. Oh, C. H. Lee, and Cheol Eui Lee*

Department of Physics,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J. N. Kim and S. C. Kim

Research Center for Dielectric and Advanced Matter Phys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Received 14 June 1996, in final form 14 October 1996)

We have carried out a ³¹P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tudy on the electrooptic material KTiOPO₄ (KTP). From the spin-lattice relaxation time (T_1) measurements at 17.9 MHz in the temperature range 77–390 K, two phase transition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the dominant charge carriers were observed and the activation energies were obtained in each phase.

*Corresponding author.